

+ 이장섭 · 방송과 기술 기자

파나소닉코리아

세계 최초 가정용 3D 디캠 'TMT750' 출시

- 사람의 눈과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3D 전용렌즈를 통해 사실적인 Full HD 3D 영상 재현
- 3D 렌즈를 탈부착 가능해 촬영 용도에 따라 2D, 3D 손쉽게 영상촬영
- 2D 촬영 시 명품 라이카 렌즈(F1.5)로 선명히 기록
- 3MOS 이미지센서를 장착해 더욱 선명한 이미지 재생, 5.1채널 입체 사운드 시스템 탑재



파나소닉코리아(대표 노운하, panasonic.kr)는 Full HD를 지원하며, 손쉽게 3D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가정용 3D 디지털 캠코더인 'HDC-TMT750'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TMT750 디캠은 3D 컨버전(전환) 렌즈(모델명: VW-CLT1)를 장착해 3D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3D 렌즈 탈착 시 일반 영상(2D) 촬영도 가능한 전천후 디지털 캠코더다. 3D 컨버전 렌즈는 사람의 눈처럼 시각 차이가 있는 좌·우 2개의 독립된 렌즈로 피사체를 동시 촬영해 3차원적인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록해준다. 3D 렌즈의 밝기는 F3.2며, 초점거리는 58mm(35mm 필름환산)이다.

3D 영상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3DTV의 슬롯에 영상이 저장된 SD 메모리카드를 삽입하거나 3DTV와 디캠 본체에 HDMI 미니케이블을 연결해 재생하면 된다. 또한, DVD버너와 AVCHD 호환 레코더를 이용해 DVD나 블루레이에 영상을 기록한 후 3DTV를 통해 재생할 수 있다.

TMT750 디캠은 1/4.1인치 3MOS 이미지센서를 장착해 렌즈에 들어온 빛을 3원색(레드, 그린, 블루)으로 분리해 각각 감지함으로 보다 선명한 컬러를 표현해 낸다. 각 MOS센서가 305만화소를 지원해 총 915만화소(유효화소 759만화소)를 갖췄다. 컴퓨터 CPU에 해당되는 크리스탈 엔진 프로를 탑재해 광대한 양의 데이터를 Full-HD 영상으로 빠르게 변환시켜주며, 노이즈를 최소화 시켜주는 감소 기술로 정밀한 묘사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해준다.

3D 렌즈를 탈착할 경우에도 캠코더 자체에 명품 라이카 35mm 렌즈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 와이드한 촬영(2D)이 가능하다. 12배 광학 줌을 지원해 초점거리는 35~420mm로 광각과 망원 영상촬영이 가능하다. 인텔리전트 줌 최대 18배까지 지원된다. 라이카 렌즈밝기가 F1.5(광각)-F2.8(망원)로 상당히 밝아 조명이 희미한 어두운 환경에서도 빠른 셔터 스피드를 보장한다. Full HD(1920X1080) 촬영을 지원하며 6가지 인공지능 모드가 결합된 '인텔리전트 오토(Intelligent Auto)' 시스템이 지원돼 최적의 영상 촬영을 도와준다.

하이브리드 O.I.S. 기능은 광학식 손떨림 보정과 전자식 이미지 보정기능이 합쳐진 형태로 이전 모델에 장착된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보다 2배 정도 떨림 보정이 강화돼 손떨림이 민감한 고배율 줌 촬영 시에도 선명하고 깨끗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3D 렌즈 장착 시에는 일반 손떨림 보정 기능만 작동된다.

'HDC-TMT750' 디지털 캠코더는 MPEG-4 AVC/H.264의 영상포맷으로 저장되며, 32GB 내장메모리와 SD, SDHC, SDXC 메모리 카드에도 담을 수 있다. 크기는 66x69x138mm(가로x세로x높이)이며, 무게는 375g(배터리 제외)이다. 가격은 TMT750 디캠 바디와 3D 렌즈를 기본 키트로 해서 2,399,000원이며, 구입문의는 02-533-8452로 하면 된다.

